



Ludwig van Beethoven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번호 67 '운명' (1808)

베토벤은 교향곡 3번을 완성하던 1803년에 본 작품을 구상했으며 1804년에는 구체적인 스케치까지 그려 놓았다. 이 시기부터 교향곡 5번을 완성하는 1808년까지는 베토벤 창작의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명성은 더욱 확고해지며 경제적 안정은 물론 창작력도 강렬해지던 때였다. 오페라 <피델리오>의 첫 판본, '열정'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4번, '라주모프스키' 현악사중주 등 여러 주목할 만한 걸작들이 탄생했지만 불행히도 타인과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청각장애가 악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 다임 백작의 미망인으로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던 요제피네 폰 다임(Josephine von Deym, 1779-1821)과의 사랑 때문인지, 1806년에 작곡된 교향곡 4번처럼 우아한 분위기의 곡들 또한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연애가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다시 격렬한 곡들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후 1807년에 이르러서야 교향곡 5번을 다시 쓰기 시작하여 1808년에 완성했으며, 그 해 12월 22일 안 데어 빈 극장(Theater an der Wien)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한다. 당시의 공연은 교향곡 6번, C장조 미사 중 '글로리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악장, 베토벤 자신의 피아노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 4번, 합창 환상곡 등이 연주되었는데, 총 4시간에 이르는 거대한 공연이었다. 하지만 지독하게 추웠고 또한 아쉽게도 청중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교향곡 5번의 혁신성, 교향곡 6번의 긴 연주시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교향곡 5번은 '운명'이라는 부제가 더욱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는 작곡가 자신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다. 진위여부는 불투명하나 제자 신클러(Anton Schindler)에 따르면 1악장의 동기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 라는 베토벤의 대답이 있었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본 작품에는 청력의 악화 등 젊은 시절 베토벤이 느꼈을 좌절, 슬픔, 갈등 등 깊은 고뇌의 감정은 물론 이러한 '운명'을 극복하여 확고한 자아를 확립하려는 승리와 성공의 환희가 찬란하게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c단조라는 조성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베토벤이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한 분위기를 만들 때 선호하던 조성이었던 것 같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곡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것은 음울한 c단조가 피날레 악장에서 강력한 C장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토벤 개인의 상황은 물론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정까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향곡 5번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머리 4개의 음표, 이른바 '운명의 동기(모티프)'인데 이 동기가 전 악장에 걸쳐 변형되어 등장해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곡을 일관성 있게 엮고 있다. 짧은 동기들로부터 악곡을 쌓아올려 거대한 작품을 치열하게 구축했던 베토벤의 작곡 기법은 왜 그가 이후의 작곡가들에게 절대적인 규범으로 존경받고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준다. 베토벤은 처음부터 고뇌 끝에 얻은 승리에 비중을 두었다. 이에 따라 1악장 첫 동기는 3악장에서도 변형되어 살아나고 또 4악장 재현부 직전에서도 나타나 전 악장을 단단히 결속시킨다. 또한 마지막 악장의 '환희'를 위해 3악장 스케르초를 4악장과 씬 없이 연결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2관 편성을 고수한 1, 2, 3악장과는 달리 4악장에서는 1대의 피콜로, 1대의 콘트라바순, 3대의 트롬본 등 악기의 종류를 증가 시킴으로써 폭넓은 음향을 통한 과감한 피날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참고로 트롬본이 오케스트라 합주